

“현재의 하나님”

요한복음 11:1-11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죽은지 나흘 되어 이미 썩기 시작해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이며 또한 이 세상에 어떤 불가능도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는 원래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고 일곱귀신 들려서 정신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그녀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식구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병도 들지 않고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도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는 사람이나 가정에도 병이나 사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11:4)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하고 어려움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요 11:5-6)

왜 예수님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을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자의 가족들은 이 시간이 속이 타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는데 그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1.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이 제때에 가셨더라면 일반적인 병을 치료한 작은 사건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지체함을 통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자 즉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기에 예수님이 권능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게 했습니다.

2. 주변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체하여 늦게 감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믿음이 굳건해졌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확실해졌고 특히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강한 자로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강한자로 만들기 위해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3. 믿음의 놀라운 파급의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부활함을 통해 주위의 사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까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고난과 환란은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지체 될 때 더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일으킨다

마르다가 주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와 계시는데 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흘 전에 이곳에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죽은 오라버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손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손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나흘 전에 예수

님. 과거의 예수님이지 현재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고백은 과거의 예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는 무시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일 점 일 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 장 8 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불지어다. 세상 끝 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땅과 하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어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내 가운데서 지금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 드리면 즉시로 그 신앙고백을 따라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의 기적을 믿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감각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지금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은 광신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이미 나홀 전에 죽어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하니깐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4 절에 '네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리라고 했는데 마르다가 그 말을 건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미래의 예수님으로 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활의 날 주께서 강림하실 그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지 지금은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 기적을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시 미래의 예수를 고백하므로 예수님을 미래로 밀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에 주께서 강림하실 그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은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 것에 대하여 입에 침이 마르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성도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이 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서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말로 우리가 묵였으며 입술은 말로 사로 잡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불러오는 수레와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란 과거의 예수 미래의 예수밖엔 모르고 현재 기적을 해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마음속에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현재에 무시당한 그 예수께서 마음속에 통분히 여기시며 또 민망히 여기신 것은 문제에 짓눌려서 비극적인 인간이 된 것을 보고 주께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덤가에 왔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현재의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여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것은 지금 살아 계신 주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낭패에 처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얼굴로 그리스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40 절에 "마르다여,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면 오라버니는 썩어버린다. 네가 믿으면 내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실천 위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 스스로 나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였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돌을 밀고 밀어서 결국에 그 돌문이 움직여서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서는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응답된 기도제목이,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그 지체된 응답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의 위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까지 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옮깁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옮겨야 하는 돌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며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